

# 광주시, 여름밤 도심 여행 '야간관광콘텐츠' 운영

### 사직공원 전망대 등 야간 산책 대인예술야시장서 미식 바캉스 광산 워터파크 페스티벌 물 축제 연극·전시·자동차극장 등 다채

7월 광주광역시에서 예술과 미식으로 어우러진 대인예술야시장부터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물들일 물 축제, 다채로운 공연 등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심 속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광주의 야간관광콘텐츠를 진행하고 29일 밝혔다.

먼저 '사직공원 전망대'는 남구 양림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의 대표적 야경 명소로, 광주천과 금남로, 무등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특히 전망대 내부에는 광주의 역사와 문

화를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전망대에서 이어지는 '사직 빛의 숲'은 사직공원 내 산책로 830m 구간을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꾸민 미디어아트 기반 야간 콘텐츠다. '사람들의 소원이 은하수가 돼 내려온다'는 콘셉트로 구성돼 자연 속 감성 체험과 예술적 몰입감을 함께 제공한다.

옛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지에 조성된 디지털 정원 '금남나비정원'은 광주 도심 속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인 나비상자와 LED 벤치인 나비쉼터를 볼 수 있고, 야간에는 35m 너비의 인공 폭포인 벽천에 프로젝션 맵핑으로 표현한 나비폭포를 즐길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은 넓은 잔디와 감성적인 줄 조명(스

tring 라이트)이 어우러져 피크닉과 야경을 동시에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올해는 잔디 생육을 위한 휴식 공간을 거쳐 지난 5월30일부터 개방됐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자고개 전망대'는 도심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야경 포인트다. 산수오거리에서 원효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면 고갯마루에 도착할 수 있다. 전망대 인근에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축조된 무진고성 성터가 남아 있어 광주의 역사와 함께 시간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다.

다채로운 야외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광주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인예술야시장'은 '한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테마로 오는 7월 5·12·19일 매주 금요일 오후 6-9시30분까지 운영한다. 청년 창작자와 시장 상인들이 협업한

먹거리 부스와 감각적인 푸드 콘텐츠를 비롯해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MZ세대를 겨냥한 이색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흥겨운 음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물 축제도 열린다. 오는 7월26일 오후 2시부터 광산구 첨단1동 미관광장 일원에서 '제2회 광산 워터파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광산구와 첨단지구 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도심형 물 축제 주제는 물총대전, 키즈풀, 얼음놀이터, 천원맥주존, 플라마켓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메인무대에서는 DJ와 밴드 공연, 인기 뮤지션의 라이브 무대가 이어지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동구 서석초등학교 앞 '아이 러브 스트리트'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플라

마켓 '별별마켓'이 열린다. 열대야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분좋은극장'에서는 코미디 연극 '룸메이트'가, ACC에서는 '애호가들의 편지'와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등 전시가 개최된다.

또 자동차극장인 '광주시네마파크'에서 영화 관람을 통해 이색 데이트도 가능하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7월의 광주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야경 명소, 전시와 공연, 야외 축제 등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며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밤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aeong@jnilbo.com

## 전남도, 中 청도서 식품기업 대상 투자유치

### 한국산 원재료·기술 수요 높아 인센티브·수출형 공장 설립 제시

전라남도는 지난 26일까지 4일간 중국 산둥성 청도시를 방문해 현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도 지역 식품기업 7개사와 투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1대1 면담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우수한 산업입지와 물류 인프라,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수출형 가공공장 설립 모델을 제시했다.

청도는 산둥성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수산물 가공과 냉동식품, 조미료 산업이

밀집해 있다. 한국산 원재료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국과 적항 노선도 잘 구축돼 있어 전남과의 산업 협력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전남도 방문단은 식품 가공 분야에 특화된 현지 기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가공공장 설립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일부 기업은 전남의 투자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후속 논의에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또한 청도 공익단체 및 코트라 청도무역관과의 네트워킹 행사도 함께 열려 양 지역 간 식품산업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오지현 기자



6·10민주항쟁기념 음악회 빛의 혁명 세레머니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음악회'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공원에서 열려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한 민주시민들을 중심으로 결합된 1987 합창단이 '아!민주정부'를 부르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강명진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박성연 밴드, 백규열과 촛불밴드 등이 참여했다. 김양배 기자

## 전남도, 유기농업 기반 농촌융복합산업화 속도

### 생태마을·친환경인프라 등 105억 6차 산업화...지속가능 구축 박차

전라남도는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총 105억 원(보조 83억·자부담 22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친환경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살리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생산자단체가 생산·유통

·가공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순천농협과 보성 장양농조합법인에 각 5억 원을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유기농업 체험장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농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도내 71개 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마을에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흥 지북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계량마을은 지난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생태농업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을 소득을 창출하며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오지현 기자

## “이것만은 꼭”...광주 청년들, 강 시장에 정책 제안

### 청년센터 10주년 기념 토크쇼 정책 설계 참여 등 제안 쏟아져 강 시장 “청년 아이디어 정책화”

광주광역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열린 '광주청년센터개관 10주년 기념식'에서 청년들과 미니토크쇼를 열고, 일자리·주거 등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청년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청년과 함께한 10년 그리고...'라는 주제로 열렸다.

10년간 광주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으로 정책을 수행한 광주청년센터를 돌아보고, 참여청년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 지역 청년 유관기관, 청년활동가, 타시·도 청년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센터 1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역대 청년센터장 축하 메시지, 10주년 축하기념패 전달, 미니토크쇼, 비전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니토크쇼는 기존의 딱딱한 정책 설명회를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형 자리로 기획됐다.

미니토크쇼는 기념식에 참석한 청년들이 즉석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받고 허심탄회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광주시의 1년치 청년예산 3000억원을 한곳에서 쓸 수 있도록 광주청년시청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요?”, “청년 상시 네트워킹 공간과 행사 자주 개최해주세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되는 모습을 보고싶어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 시장은 “청년들의 상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의 든든한 '기밀 언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아 기자

##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 전국 197개 단체, 새정부 개방 촉구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선언단’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선언단은 영산강과 금강 하구둑 해수유출을 포함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 수질 개선, 취·양수장 이전, 기후변화 대응담 계획 백지화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홍창남 분과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강의 생명력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국가 생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생태환경 분야 대선 공약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호열 낙동강살리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

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운동연합·천도교한울연대·금강유역환경회의·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197개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 1152명이 참여했다.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4대강 사업은 강의 기능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정책”이라며 “새 정부가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권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일부 부처가 영산강·금강하구 복원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수질 개선과 용수공급 등 과학적 대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 소관 부처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기자